

ESG Trends and Response Cases Overseas

# 해외의 ESG 동향 및 대응사례

## Write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Contents

- I. 서론
- II. 국가별 동향
  - 1. 북미
  - 2. 유럽
  - 3. 동남아
  - 4. 일본
  - 5. 중국
  - 6. 남미

※ KOTRA [2023 글로벌 ESG 동향 리포트]  
바탕으로 작성

## I. 서론

전례 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함과 동시에, 복잡·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불평등, 빈곤, 인권유린과 같은 문제들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그동안 무차별적인 개발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창출하던 기업들에 재무적 성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야기한 환경·사회 문제들을 직접 해결토록 하고, 친환경 생산, 판매,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며, 경영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게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 II. 국가별 동향

### 1. 북미

#### 1) 미국

ESG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환경’ 요소

ESG 보편화에 힘입어 최근 미국 식품업계에서 부상하고 있

는 키워드로 ‘저탄소’와 ‘지속가능’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진이 2021년 9월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육가공식품 제조의 근원인 축산업을 시작으로 사료 및 기타 가공식품 제조, 포장 및 완제품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식품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에 해당하는 약 173억 톤에 달하며, 이 중 약 60%가 육류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이렇듯 육류와 간편식품 소비 증가와 같은 취식 및 소비 행태 전환으로 인해 식품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식품업계 또한 식품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탄소 배출 정보를 수치화해 공개하는 탄소 라벨링

소비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점차 구체적

인 평가 기준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탄소 라벨링, 또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 Print) 표기다.

탄소 라벨링은 제품 겉면에 제품의 생산, 운송, 판매,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친환경마크나 유기농, 동물실험 반대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마크들처럼 근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고 소비자향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명확한 수치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기업에는 배출수치 감소에 대한 목표 설정을 장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동일 제품군 내에서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식별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식품 제품 중 탄소 라벨을 부착한 기업으로는 식물성 귀리 음료를 판매하는 오틀리(Oatly)가 있다. 오틀리는 올해 2월부터 북미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요거

트 제품군에 미국 식품 최초로 탄소 라벨링을 도입했는데 제품 1kg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CO2e)를 정확히 수치화해 겉면에 노출했다. 한편, 오틀리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 인기제품인 오틀밀크를 포함한 12개 제품라인에 탄소 라벨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실제로 이런 라벨링은 소비자들을 저탄소 배출 음식으로 유인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3년 1월 존스홉킨스에서 발표한 ‘환경 라벨링에 따른 패스트푸드 메뉴 선정 영향 조사’에서 피실험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영향(High climate impact)’ 라벨이 붙은 소고기버거 대신 비소고기 함유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라벨링 없는 메뉴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대조군에 비해 2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향후 환경과 기후변화, 탄소 배출 등에 대한 경고적 라벨링이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음식 선택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제품별 탄소 라벨링에 대한 전 국가적 표준 및 의무는 없지만 영양 성분뿐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환경적 영향 또한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저스트 샐러드(Just Salad), 파네라 브레드(Panera Bread), 칩otle(Chipotle) 등이 자발적으로 메뉴별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 탄소 배출량 관련 정책적 움직임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2023년 6월, 주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도 주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보고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있었지만, 최근 통과된 법안에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식품업계를 포함, 산업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 공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식품 기업을 포함한 미국 산업 전반에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환경(E) 요소는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와 관련 규정 강화로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힌 만큼 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식품기업에도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법령으로 구체화된 바 없으나 탄소 배출 라벨링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움직임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캐나다

### 캐나다의 탄소배출 현황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 또한 산업 차원에서 탄소 절감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는 ESG ‘환경’ 분야 중 온실가스, 에너지, 물 사용량 감축을 중점적으로 목표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양 감축 목

표의 경우, 넷제로 2050(Net-Zero, 탄소중립)에 참여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넷제로란, 캐나다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경제를 만들려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 및 다양한 캠페인, 이니셔티브 등을 시행하는 운동이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 국가가 함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캐나다의 견고한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2021년 6월 29일부로 이를 법으로 제정했다. 2050년까지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탄소가 공기 중 배출되기 전 포획하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상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정부 누리집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와 퀘벡주를 비롯해 토론토, 밴쿠버, 해밀턴과 같은 대도시는 이미 탄소 포획 등의 방법으로 이미 넷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매년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NIR)를 작성해 온실가스 배출 수치, 현황, 전망 등을 조사해 공식 발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를 매년 4월 15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2021년 총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8.4% 감소했고, 이는 연평균 약 0.6%씩 감소한 수치다.

## 정부 기관을 위한 캐나다 환경 이니셔티브, '녹색정부기금'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정부기금(GGF)은 정부 기관과 부서의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연간 1kt(Kilotonne, 킬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또는 자원을 희망하는 1kt 이하 배출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해 GGF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주로 노후 건물 재건축이나 연방 건물 또는 운영 기기를 재생가능 전력 시스템으로 교체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적게는 약 25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39억 원까지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2023년 7월 13일 기준, 16개의 프로젝트가 GGF를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종료했으며, 남은 47개의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다른 종료 연도를 앞두고 있다.

## 캐나다 ESG의 전망 및 시사점

캐나다는 연 0.6%씩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2050년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조기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캐나다 정부 누리집에서는 ESG 핵심과도 같은 E(환경) 부문에서 민간 기업 대상 프로젝트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승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3년 7월 13일 기준, 캐나다는 2017년 SIF(전략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신청 모집을 시작한 이래로 약 60조 규모에 달하

는 110개 친환경 프로젝트에 총 6조6404억 원을 지원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금 마련 및 캐나다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 2. 유럽

### 1) 영국

영국은 친환경,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만큼 ESG 수준도 비교적 높다.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으로 시작해 2020년 12월 '에너지백서 2020', 2022년 4월 '에너지안보 전략', 2023년 4월 '에너지안보 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왔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별 상장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해 본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았다.

또한 영국 재무부는 투명한 ESG 경영 촉진을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을 발간했다. 해당

로드맵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제품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전략 충족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정책과 법령은 기업들이 ESG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영국조차 ESG 법안이라 불릴 단일 법령은 가지고 있지 않다.

### 영국 ESG 경영 사례: 유니레버(Unilever)

세계적인 생활용품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2039년까지 자사 가치사슬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유니레버는 각종 제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유니레버는 2025년까지 자사 포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하고, 분해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최소 25% 이상을 재사용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제나 청소도구 용액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더 작은 용기에 담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크기가 작아졌음에도 여전히 같은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이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고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료와 물이 사용된다. 유니레버는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대체육, 유제품 대체품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비건 제품도 내놓고 있다.

### 2) 스위스

스위스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력 지수(GSCI)’에서 3년 연속 세계 3위, UN의 지속가능한개발지수에서 세계 15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에서 한국보다 앞선다. 또한 EU의 그린딜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스위스 내 ESG 관련 규정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 현재 발의 절차에 있는 규정: 그린워싱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SIF)은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와 협력해 2022년 말까지 친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 개정 권고안을 2023년 9월에 연방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 산업군별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

스위스 은행협회는 ESG 분야에서 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 2018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6월에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연방 정부의 권고에 따라 회원 은행을 위해 판매 시점의 투자 자문 서비스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ESG 선호도와 리스크를 통합하는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히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 재무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업계 내에서 ESG 선호도 및 위험을 고려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별 ESG 동향: 제약

노바티스는 환경 부문에서 2025년까지 자체 사업장에서 넷제로를 달성(Scope1, 2)하고 공급업체 선정 시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며 2차, 3차 포장재(가능하면 1차 포장재)에서 PVC를 제외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전체 공급망에서 넷제로를 달성(Scope1, 2, 3)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중지한다는 계획이다.

## 시사점: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현재 스위스 중소기업(직원 수 250명 미만)들은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지만, EU 공급망실사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을뿐더러 스위스에서도 비재무 정보 공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에 취리히 지속가능성센터 재단이 설립한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센터(CCRS)'가 스위스 연방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를 개발, 2022년 3월 론칭했다. 'esg2go'라 불

리는 해당 평가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esg2go는 대기업의 ESG 평가 및 보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한 이니셔티브로,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개발 초기에 참여했으며 이 대기업들은 현재도 전략 위원회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1년 이용료는 250~600스위스프랑(37만~87만 원) 선으로, 각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의 사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에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가 될 수 있다.

## 3)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네덜란드 순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원자재 소비를 50% 줄이고자 한다.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기 위해 2021년 4월 세계 순환 경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순환 경제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 예로 4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는 순환 경제 가속화 플랫폼(PACE, <https://pacecircular.org/>)이 있다. 이 플랫폼은 공공-민간 영역의 협업 플랫폼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자 폐기물 재활용 콘퍼런스 등 각종 콘퍼런스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 네덜란드 업사이클링 사례

① 커피 찌꺼기에서 지속 가능한 잉크 '재탄생'  
카페잉크(Caffe Inc)는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잉크, 식물성 오일, 커피 블록으로 재탄생시킨다. 커피 찌꺼기에서 안료를 추출해 지속 가능한 잉크로 전환함으로써 커피 찌꺼기에 대한 순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정 잉크에서 발견되는 오염 물질인 카본 블랙 안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정 잉크는 화석 연료를 태워 생산되는 공해성 카본 블랙 안료로 생산된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는 자연적

으로 어두운색을 띠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만들기 위해 태울 필요가 없다. 카페잉크는 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커피 찌꺼기로 검정 잉크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회사다. 커피 찌꺼기는 커피 잉크 외에도 샴푸나 비누 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커피 블록은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카페잉크는 매년 2만 톤의 커피 찌꺼기를 1000톤의 안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공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 안료는 종이, 섬유, 식품 및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현지에서 잉크를 생산하면 약 525가구에 해당하는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

② PET 폐기물 업사이클링  
아이오니카 크놀로지스(Ioniqa Technologies)는 아인트호벤 연구팀에서 시작해, 기술 개발을 해 파생된 회사다. 이 회사는 독자 순환 기술을 사용해 PET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전문 업체다. 혁신적인 공정을 통해 모든 종류와 색상의 PET 폐기물을

식품에 안전한 투명 PET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들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생산하는 순수 원료는 석유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과 동일하며 식품 포장에도 적합하다.

③ 리보틀드, 병에서 술잔까지  
2016년 설립된 리보틀드(Rebottled)는 빈 와인 및 주류 병의 용도를 변경해 업사이클링 유리 제품을 만든다. 병을 스타일리시한 술잔과 기타 유리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이 회사는 유리 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케이터링 시설에서 병을 수거해 리보틀드 팩토리로 배송한다.

### 3. 동남아

#### 1) 베트남

##### 베트남의 ESG 관련 정책 현황

베트남 정부는 2021년 UN 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

로를 달성하고 석탄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산림 벌채를 2030년까지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2023년 5월 천연자원환경부(MONRE)는 ‘넷제로 2050’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규정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솔루션, 해상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석탄 가스화 기술 연구, 고체폐기물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환경(E): 온실가스 배출자 명시, 환경영향평가

2022년 12월 29일자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72/2020/QH14에 대한 개정안 21/VBHN-VPQH)은 베트남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상자(GHG inventory)에 포함되는 GHG 배출자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하고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1] 베트남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자 기준(Law No.72/2020/QH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00톤 이상인 단체</li> <li>·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산업생산시설</li> <li>· 연간 연료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육로 운송 회사</li> <li>·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상업용 건물</li> <li>· 연간 가동 용량이 65,000톤 이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li> </ul>
---

또한, 각 온실가스 배출자는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가 할 당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 당량(2026년 시작 예정) 내 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후에는 탄소 거래 시 장에서 구매, 입찰 및 차입의 형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 해야만 할당량을 초과할 수 있다.

### 베트남 기업 ESG 현황

PwC의 2022/2023년 베트남 ESG 보고서(Vietnam ESG Readiness Report 2022)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단체 중 80%가 ESG 이행을 약속했거나 향후 2~4년 안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4%가 이미 ESG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 36%가 향후 2~4년 안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SG 경영 사례: 비나밀크 (Vinamilk)

비나밀크는 2012년부터 GRI

표 준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라 10년 이상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해 온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명확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비나밀크는 베트남 ESG 성숙도 측면에서 선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를 사업 목적, 전략,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가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을 공급망 내 공급 업체들로 확대 해 해당 산업군 내에서 ESG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나밀크는 2014~2021년 약 2370억 동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나밀크의 2021년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및 에너지 자원 절약, 축산 및 제품 생산에서의 자원 절약,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측면에서 순환 경제 실

현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 태국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2019년 8월 태국 정부는 'BCG(바이오·순환·녹색 경제)' 경제모델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태국은 BCG 경제모델에 기초한 '방콕 목표(Bangkok Goals on BCG Economy)'를 채택했으며 '방콕 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 보존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 ESG 정책 추진 현황: 환경 부문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태국은 탄소중립 장기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한(20~25%)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겼으며, 탄소중립 도달 기한은 2065년에서 2050년으로 수정,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net zero) 기한을 2100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했다.

태국은 탄소 중립 실천방안으로 2018년 7월부터 ‘플라스틱폐기물 관리 계획 2018-2030’을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 중이다. 2020년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무료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했으며, 2022년에는 36마이크론 이하 비닐봉지, 스티로폼 음식 포장 용기, 100마이크론 이하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그 결과 태국 공해관리국(PCD)은 최근 3년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량이 총 148,699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월 내각과 국가환경위원회(NEB)는 2022~2027년까지 계획된 플라스틱폐기물 관리 계획 2단계를 승인했다. 2단계 플라스틱폐기물 절감 목표로는 △쓰레기 매립지 내 폐플라스틱 완전히 없애기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 △폐플

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50% 감소가 있다.

### ESG 경영 사례

① PTT Global Chemical Public Company Limited  
태국석유공사(이하 PTT)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내 30%, 2040년 내 50% 감축하고 2050년 내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연가스 부문 자회사인 PPTEP는 태국 최초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로 태국은 연간 700,000~1,00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TT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등급의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태국 라용의 마타퓏 산업단지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은 태국에서 연간 6만 톤의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7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Thai Union Group Public Company Limited  
해산물 제조업체인 타이유니

온 그룹은 2025년까지 브랜드 제품의 100%를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사용하고, 2030년까지 개인 상표(PB) 제품의 60%를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맹그로브, 산호초 및 열대우림과 같이 타이유니온 그룹의 공급망과 연결된 중요한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억 5천만 바트(약 93억 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③ Charoen Pokphand Group Co., Ltd.

식료품, 농업, 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CP그룹은 2016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WBCSD)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P그룹의 식료품 부문 자회사인 CP Foods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친환경 제품의 매출을 총 매출의 40%까지 늘릴 계획이며,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포장재 사용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 4. 일본

### 이산화탄소 삭감률 마크 ‘데카보스코어’ 발표

미쓰이물산과 하쿠호도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Earth hacks’가 2023년 7월 25일 이산화탄소 삭감률을 나타내는 새로운 마크 ‘데카보스코어’를 발표했다.

Earth hacks는 2022년 1월 시작한 프로젝트로 개개인의 생활 속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데카보스코어’에서 ‘데카보’는 탈탄소를 뜻하는 ‘Decarbonization’의 약자다. 미쓰이 물산과 제휴하고 있는 스웨덴 기업 Doconomy가 개발한 ‘The 2030 Calculator’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시화 툴을 이용해 종래 및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 삭감률을 산출한다.

미쓰이물산과 하쿠호도는 2022년 7월부터 데카보스코어 마크 표시 기업을 모집해 현재까지 도요타 자동차나 일본항공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 제품의 해당 마크 사용료, 제품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산정 지원 및 컨설팅으

로 수수료를 받는다. 2030년까지 참가 기업을 1000개로 넓히고, 연간 30억 엔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 데카보스코어 참여 기업들의 ‘탈탄소 노력’

UCC 홀딩스에서는 공장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거나 커피 찌꺼기를 열원(熱源)으로 사용해 8% 할인을 달성했다고 한다. 사토미 료 집행임원은 로스팅 열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커피는 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일본 항공의 가메야마 가즈야 씨는 연비가 뛰어난 에어버스 신형기 ‘A350형기’ 도입으로 국내선에서는 ‘15% 할인’을, 국제선에서는 ‘25% 할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버려지는 원료 활용한 탄소 절감 노력

도요타는 자동차 시트 가죽 조각으로 만든 ID 카드 홀더를 내놓았다. 새 가죽으로 만든 것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6%가 낮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다. 도요타 신사업기획수

나카무리 케이시 씨는 시트 및 에어백 등 제조공정에서 나온 단재(재료를 가공하고 난 뒤에 생기는 나머지 조각)를 이용해 가방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활용을 증산 간지역(평지에서 산간지에 걸쳐 경사지가 많고 농업이 불리한 지역)의 간벌재(숙아 베기로 얻은 목재)나 식품 찌꺼기 등의 분야로도 넓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패션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제품이 많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재활용한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 MALIBU SHIRTS(말리부 셔츠)와 바나나 밭에서 나오는 바나나 줄기로 만든 섬유를 이용하는 BANANA CLOTH(바나나 클로스) 등 지속가능성을 의식해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브랜드가 전시됐다.

## 5. 중국

### 중국 핀테크 기업 ESG 대응 사례

① 앤트그룹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장기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세워왔으며, 2017년부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22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엔트그룹은 처음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TCFD)의 지침에 따라 평가와 공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고 기후 관련 위기 및 기회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엔트그룹은 2030년까지 Scope1, 2, 3에 걸친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녹색보험, 녹색펀드, 녹색투자 등을 통해 사회가 녹색·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왔으며 탄소감축 및 대체, 상쇄 조치 방안을 조합함으로써 2년 연속 기업운영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 ② 텐센트

텐센트는 2016년부터 매년 ESG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기술 및 관리 혁신, 회사 운영, 산업 지원, 공익활동 등 전체 사업부문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전체 소비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텐센트의 2022년 ESG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3만 6419MWh의 친환경 전력을 구매하여 24만1952톤의 탄

소배출을 감축했으며, 2,740톤의 전자 설비를 재활용하여 전자 폐기물 배출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텐센트는 2020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기구(SSV)를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제품, 운영모델 등 혁신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형성전자

1995년 항저우에서 설립된 형성전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탄소계좌관리시스템 및 녹색금융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기업의 저탄소 프로젝트들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성전자는 해당 플랫폼들을 통해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센터와 탄소계좌간 연계, 기업-정부 부처-금융기관의 연계를 구축하였고, 은행 및 금융기관은 신용, 물, 전기, 석탄, 탄소 할당량, 탄소거래 등에 관한 기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색 및 저탄소 프로젝트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특히 건축자재 구매에 있어 최대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 카펫 재료는 콜라병 재생재료를 재질을 사용하였고, 사무용 의자는 품질이 비교

적 좋은 인체공학 의자를 사용하여 의자의 교체주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폐기율을 낮추었다. 형성전자는 ‘종이 없는 사무실’ 캠페인을 진행하여 입찰문서, 계약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6. 남미

### 1) 페루

#### ESG 동향

페루는 현재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의 ESG는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페루 환경부(MINAM)는 ‘국가환경정책 2030’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페루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2023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의 목표 달성 진행도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페루는 전체 71.7점으로 166개 UN 회원국 중 65위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빈곤층 감소 등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페루는 정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ESG를 적용하기 시

작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ESG 관련 법률 제정 미흡, 기업들의 인식 부족 등 한계가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높다.

## ESG 경영사례: NATURA COSMETICO

NATURA COSMETICO는 화장품 기업으로 2022년 환경(E)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친환경 경영으로 국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 재활용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는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95% 이상의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보호를 위해 아마존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2025년까지 산림 벌채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2) 브라질

### ESG 동향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인 아마존을 보유한 국가로 역사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1992년 지구 온난화, 산업 폐기물 등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브라질 기업,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ESG 기관

과 협업해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 아직 중소기업은 별도 평가를 받지 않지만, 대기업들이 협력 조건으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SG 경영사례

#### ① Natura&Co

화장품 생산업체인 Natura &Co는 1969년 설립돼 73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다. Natura는 199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ESG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Natura는 제품의 84%를 지속 가능한 완전 천연원료로 생산하며, 동물실험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3D프린터 및 특수한 테스트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의 플라스틱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ESG 경영으로 Natura는 탄소 배출권 획득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을 상쇄함으로써 10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있다.

#### ② Boticario

화장품 제조사 Boticario는 2021년 발간한 ESG 보고서에서 환경, 다양성과 사회 분야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 Boticario는 2030년까지 생산품의 15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Boticario는 자사 제품에 사용된 유리병을 한곳에 모아 수거한 뒤 포장 협력사에 재분배해 제품 용기로 다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실제 Boticario의 2021년 32% 수준이었던 재활용률은 2022년 37%까지 증가했다. Boticario는 현재 향수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 ESG 점수를 도입했다. 제품의 출시 여부를 결정할 때 상품성, 수익성 외에도 ESG를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 제품의 원료, 포장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

#### ③ ABRAPA

농업분야에서는 브라질 목화 생산자협회(ABRAPA)가 ‘책임있는 브라질 목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농장들은 재배·가공·유통 등 목화산업 밸류체인 관련 노동·친환경 등 183개 항목을 확인받아야 한다. 브라질 목화 농장 중 약 84%가 책임 있는 브라질 목화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목화 제품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산지·가공방식·유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3) 파라과이

#### ESG 동향

파라과이에서도 최근 ESG 기업경영에 관심이 높다. 현지 기업들은 각사 홈페이지와 언론사 기사 등을 통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직 ESG 경영 개념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특별한 규제나 법률은 없지만, 파라과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파라과이 내 일부 기업은 꾸준히 지속가능 경영 전략 및 보고서를 홍보하고 있다. 연간 보고서 형식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의 홈페이지 카테고리 일부에 보고서를 배치해 놓고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현재 약 100개 기업이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 ESG 경영사례

##### ① DASANI

DASANI는 코카콜라 계열사로 생수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목표 중 하나인 ‘폐기물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MI BARRIO SIN RESIDUOS(폐기물 없는 우리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는 웹 플랫폼을 통한 지역 주민과 기초 재활용업자들 간 연결 지원으로 재활용 재료를 수거 및 재사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재활용 재료 수거 시스템 작업을 시각화해 이목을 끌고 있다. 초기 계획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있는 다섯 개 동네인 LAS LOMAS, LOS LAURELES, HERRE RA, LAS MERCEDES, LOMA PYTA에 재활용업자 협회와 협력해 각 지역에 할당된 기초 재활용업자들이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수거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모인 물품의 판매 수익은 직접 재활용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② COMFAR

1977년 창립된 COMFAR S.A.E.C.A.는 1980년 자체 연구소인 EMPA를 설립해 국내 약품 생산을 시작했다.

EMPA를 통해 고체, 반고체, 내부 액상, 외부 액상 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GMP 규정에 따라 국내 다른 제약 회사에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MFAR는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자원 활용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변의 녹색 공원을 보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품 포장을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독 안내

계간 영문지

‘Converttech International’

(사)한국포장협회 사무국

■ TEL : 02-2026-8655

■ FAX : 02-2026-8660

■ E-mail : kopa1991@daum.net